

닭고기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향상 및 수출확대 방안



정 문 성 본부장
(주)하림 1본부

1. 수직 통합경영체계에 의한 생산성 향상

육계산업의 경쟁력은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을 감안하여 FCR로 판단하고 있다. 하림의 경우 1997년 대비 2009년 FCR(1.5kg 보정)이 0.39 개선된 1.67 기록, 이는 kg당 190원, 수당 300원을 절감한 결과이며 업계 전체로는 연간 1,4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그림 1〉 참조).

미국 등 경쟁국의 FCR은 1.55 수준으로 우리와 0.1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육계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국내 농축산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서 타 산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통합경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양돈업계의 경우 생산성이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림의 육계 생산원가는 도계장 도착 기준 생계 kg당 1,400원으로 미국 972원에 비하여 70%, EU국가 1,324원에 비해서는 95%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2,497원 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1,097원을 낮게 생산하고 있다.

향후 육계 생산비 절감방안으로는 대닭사육 확대, 종계 생산성 향상에 의한 병아리 생산 원가 절감 그리고 FCR을 경쟁국 수준인

1.5대로 낮추면 추가로 kg당 150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 대닭 사육, 현재 1.5kg 대인 출하중량을 2.5kg으로 키우면 생산원가를 kg당 60원 이상 줄일 수 있다.

하림은 지난해부터 부분, 발골육 시장을 확대하고 특히 그동안 비선호 부위였던 가슴살을 다이어트, 웰빙족 등을 겨냥한 닭 가슴살 캔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선호부위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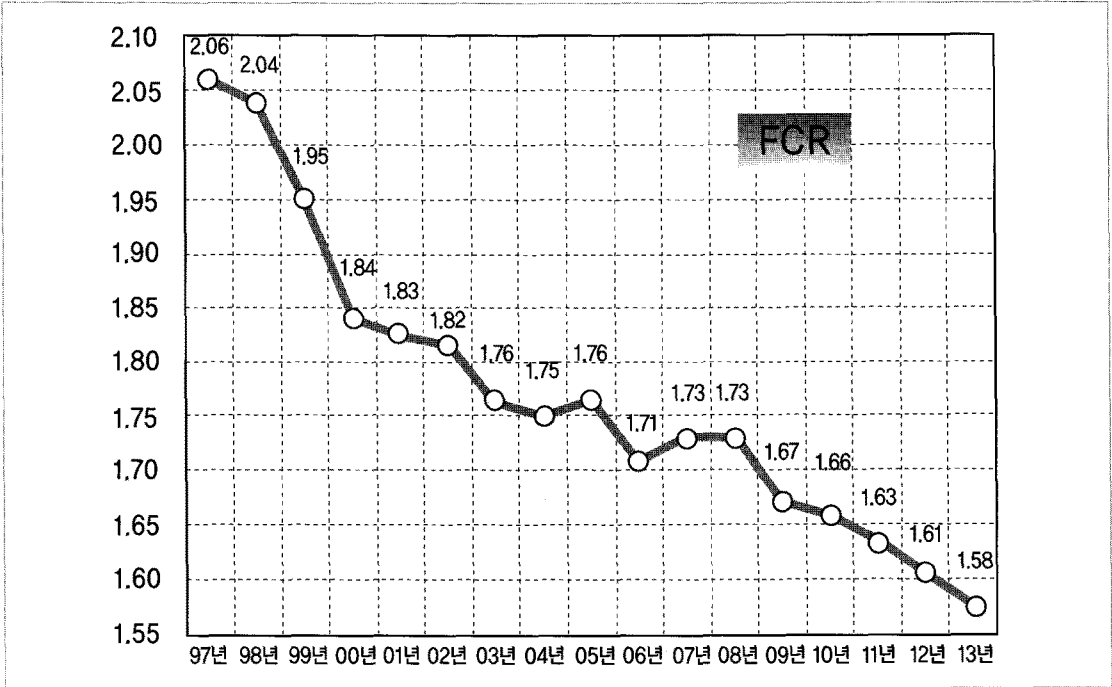
하림은 2.3kg~3kg의 대닭을 올해 출하량의 16%, 내년에는 35%, 2013년도까지 50% 생산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 중에 있다.

▶ 병아리 원가 절감은 차광계사 육성, 산란농장의 위탁사육 계약 도입, 사육환경개선에 의한 종계 생산성 향상 및 방란관리를 통하여 현재 450원의 병아리 생산원가를 300원대로 낮추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 닭고기 수출 활성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말처럼 닭고기 수출을 통해 국내 육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그림 1〉 하림의 연도별 FCR 개선 추이 및 목표



일본 육계산업계는 수평 계열체계에 의한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세계 최고의 생산원가라는 불명예속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일본의 육계 생산 원가는 kg당 2,500원 선으로 미국의 2.5배, 한국의 1.8배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20년 장기불황에 의한 일본 소비자들의 저가품 선호에 의해 지난해부터 브라질산 수입 냉동육이 해동되어 수퍼에서 자국산의 60% 선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하순 현지 조사한 일본산 닭고기 도매가격이 kg당 다리정육 8,505원, 가슴육 4,050원인 반면 한국은 다리정육 5,164원,

가슴육 5,832원으로 다리정육은 일본이 165%, 가슴육은 한국이 144% 각각 높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리정육 위주의 신선육으로 대일 수출에 나서면 냉동육인 브라질산에 비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 연간 40만톤에 달하는 일본 닭고기 수입 시장의 상당부분 장악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2.6kg 이상의 대담을 생산해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연중 안정적으로 대담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림에서 대담 사육을 시행하면서 얻은 결론이 사육환경이 우수한 무창계사에서 연중

대답사육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우수한 시설의 계사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축사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온덮개 하우스 계사를 무창계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육계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3. 계열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

하림 계열농가의 소득 트렌드를 보면 지난 1993년 평균 사육규모 2만6천수에 평균 조수익이 2천5백만원에서 올해에는 5만5천수 사육규모에 농가 평균 조수익이 1억6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기간 동안 사육규모는 2.1배 증가한 반면 농가 조수익은 4.2배가 증가했다. 수당 사육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60원에서 올해는 425원으로 수당 165원 상승했다(표 1).

하림은 특히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

해 미국, 덴마크 등 경쟁국의 3.3㎡당 육계 생산량이 140~150kg으로 우리 생산량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농가 소득 증대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지난 2008년도 계사 한 평(3.3㎡)당 조수익이 8만8천원이던 것이 올해 11만5천원으로 2년 사이에 30%가 늘어나 수당 사육비가 100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그동안 계사 3.3㎡당 80kg에 불과했던 육계 생산량을 105kg으로 확대하고 사육횟수를 늘린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하림은 2014년도에 전체 농가의 3.3㎡당 조수익 목표를 15만원으로 세우고 사육 환경개선 등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3.3㎡당 조수익 15만원 이상인 농가 현황이 2008년 15호에서 2009년 33호, 2010년 상반기 65호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3~4년 사이에 200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농가

〈표 1〉 하림 육계농가의 연도별 수익성 변화

구분	단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97~10.6	10년(9)	비고
수수로 총 지급액	억원	96	112	170	179	153	239	231	250	294	303	327	379	405	402	395	445	387	511	육계·삼계·토종
농가 평균규모	천수	26	27	29	34	34	35	34	35	38	39	42	45	46	48	51	52	55	55	농장종합조사서 기준
농가당 조수익	백만원	25	26	34	37	38	47	50	54	57	54	66	74	81	87	83	92	106	106	*연간 3회전 이상 기준
수당 평균사육비	원/수	260	243	279	272	258	317	311	331	346	347	327	363	371	370	383	390	421	425	*현재 거래농가 기준
평체	kg	1.52	1.47	1.53	1.54	1.52	1.52	1.54	1.52	1.55	1.58	1.57	1.53	1.53	1.54	1.56	1.56	1.58	1.60	전체 평균
사육회전수	회							4.3	4.5	4.5	4.6	4.8	4.9	5.0	5.2	4.5	5.0	5.1	5.8	*연간 3회전 이상 기준
3.3㎡당 조수익	천원										65	75	85	85	87	88	104	113	115	*현재 거래농가 기준
3.3㎡당 150천원이상	호															15	33	65		

의 평균 조수익이 1억5천만원에 달하게 되고 또 다시 사육비가 현재보다 100원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하림은 이처럼 농장 생력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거둬오르며 농가와 회사가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가꾸어가고 있다.

반면 개별사육 농가의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 2007년~2009년까지 3개년 동안의 월평균 시세와 당시 사료비와 병아리 시세를 적용한 평균 사육원가를 산정하여 연간 3회 또는 4회 사육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모두 연간 조수익이 7천만원 이하로 나타나 계약사육에 비해 30% 이상 수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개별 사육농가는 대부분 사라졌다. 수직 통합경영의 장점은 각 단계에서의 이윤발생을 막아 개별경영체계에 비해 20% 이상 원가절감이 가능해지고 이 절감분을 농가, 회사, 소비자에게 각각 1/3씩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림은 그동안 개별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와 사료, 병아리를 판매한 후 농가에서 사육한 생계를 구매하는 거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수용할 수가 있다.

하림은 이밖에도 지난해 사육비, 급여, 협력업체 등에 연간 1,50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위생, 품질 향상으로 닭고기 소비 신장

육계산업이 수직 통합경영체계가 되면서 거둔 또 다른 효과로서 소비자의 니즈에 신속히 부응하여 닭고기 소비시장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닭고기 산업은 소, 돼지 등 타 육류에 비해 일찌기 위생적인 도계 가공공장 설비를 갖추고 최고수준의 위생과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해왔다.

특히 닭고기 산업계의 리더 컴퍼니인 하림 경우 신선육 400종, 가공육 350종 등 750 종류의 다양한 닭고기 제품을 개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 닭고기 소비신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하림은 과거 야반도주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료회사들이 사료공급을 기피했던 육계업계를 수직 통합경영체계 도입을 통해 ▶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FCR 개선 등 부단한 생산성 향상 노력에 의한 국제 경쟁력 확보 ▶ 고품질의 다양한 닭고기 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 신장 등 리더 컴퍼니 역할을 맡아 육계산업이 국내 농축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